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상월선원 철야정진 동참

전국 13개 교구본사주지 참석
12월14~15일 다리니정근 수행
한국불교 화합·상생 발원 법석
“한국 수행 공간 재구성 계기”

동안거 입제 후 불과 한달여 만에 하루 평균 2000여명, 누적인원 5만명이 다녀가는 등 새로운 수행성지로 자리매김한 위례 상월선원의 두 번째 철야정진에는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대거 동참했다. 13곳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했으며, 소임자 스님이 참석한 교구까지 포함하면 전국 교구본사의 대부분이 동참해 수행열기를 나누고 용맹정진 중인 9명 스님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위례 상월선원은 12월14~15일 ‘화합과 공존, 상생세상을 위한 동안거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지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비롯해 범주사 주지 정도, 마곡사 주지 원경, 수덕사 주지 정묵, 직지사 주지 범보, 은혜사 주지 돈관, 범어사 주지 경선, 금산사 주지 성우, 화엄사 주지 덕문, 송광사 주지 진화, 대흥사 주지 범상, 관음사 주지 허운, 선운사 주지 경우, 봉선사 주지 조적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덕에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범당을 가득 매웠다.

입제식에 앞서 총도감 해일 스님은 상월선원 운영 및 9명 스님들의 근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스님에 따르면 하루 한 끼만 먹고 용맹정진 중인 9명 스님들에게 직면한 문제는 배고픔보다 전법법당 내의 습기와 추위라고 설명했다.



전국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12월14~15일 위례 상월선원 두 번째 철야정진에 동참해 한국불교의 상생과 화합을 발원했다.

해일 스님은 “용맹정진 중인 스님들의 저체온증을 걱정한 외호대중들이 며칠 전 보은조끼를 전달했지만 다시 되돌아왔다”며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제식은 금산사 주지 스님의 고불문 낭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의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성우 스님은 철야정진법회 참가자들을 대표해 낭독한 고불문에서 “한국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며 “지혜와 자비 앞에서 마음을 열고 차별이 없음을 스스로 알아가며 화합과 상생을 함께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발원했다. 이어 “상월선원 결사 대중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면서 사회와 국민의 큰 버팀목이 되도록 몸과 마음이 하나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묵 스님도 발원문을 통해 “불교종흥과 인류화합을 발원하며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아홉명 결사대중들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참석한 외호대중들은 철야법회를 봉행한다”며 “오늘 이 특별한 법회를 시작으로 우리들은 부처님 지혜를 증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 땅 곳곳에 새로운 불교의 등불이 피어나 뽕뽕이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화합이 이뤄지고 한국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원경 스님은 교구본사주지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숭고한 상월선원의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며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한국불교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거듭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상월선원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르침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참 대중들은 본격적인 정진에 앞서

저마다 결의의 말을 통해 상월선원에 깃든 의미를 가리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했다.

범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아홉분 스님들이 입제한 후 한달간의 변화를 간략히 설명해 준 총도감스님의 말을 들으니 이곳 상월선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히 희유함을 새삼 느끼며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9명 스님들의 실천이 5만여 대중의 마음을 뒤흔들어 한국불교 수행의 공간을 새롭게 일궈내고 있다. 그동안의 한국불교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수행풍토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철야정진법회는 입제식 후 봉은사 공연팀의 ‘화합과 공존, 상생’ 기원 아단법석과 발원 결사등 달기 및 탑돌이로 이어졌다. 이후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 휴식을 제외하고 오전 4시까지 정진과 신묘장구대다라니 독경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은 촛불탑돌이로 회향했다.

위례=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호림박물관 ‘장엄공덕 고려사경’ 테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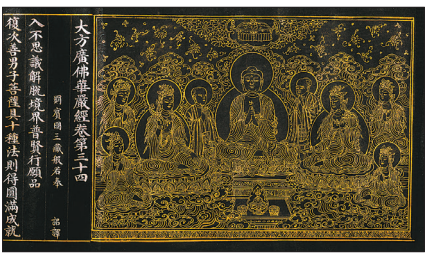
2월29일까지 신사 분관서

고려·조선 사경 21점 소개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은 신사 분관에서 작은 테마전시 ‘장엄공덕(莊嚴功德) 고려사경(高麗寫經)’전을 진행한다.

내년 2월29일까지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에는 고려시대 사경 12건 14점과 조선시대 사경 1건 7점이 선보인다. 고려시대 사경 중 8점은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다. 사경(寫經)은 문자 그대로 경전을 옮겨 쓴 것이다. 하지만 사경은 전법·교화·연구만을 위해 쓴 것도 있지만 죽은 이의 명복을 빌거나, 공덕을 기리거나, 권선을 위한 신앙의 차원에서 유�행했다. 특히 왕실과 귀족들은 번영과 수복을 기원하거나 명복을 비는 불심을 사경공덕에 집중해 사경을 한층 호화롭고 장엄하게 꾸미는 전기가 됐다.

고려전기의 사경은 개경의 주요 사찰에서 이뤄졌다. 이후 무신집권기에는 사경을 전달하는 사경원이 설치돼 그곳에서 매우 정교하고 품격 높은 사경이 제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34, 보물 751호, 1337년.

작됐다. 반면 고려말기인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신분의 높낮이와 귀전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사경에 참여했다.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고려시대 사경들은 대부분 14세기에 조성된 것이다.

사경 종이는 백지(白紙), 상지(橡紙), 감지(紺紙) 등이 이용됐고, 특히 감지가 많이 사용됐다. 글씨는 금과 은, 먹이 사용됐고, 모든 번상(變相)은 금을 사용해 화려하게 그려 넣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호림박물관 제2전시실에서는 ‘장중보육·도자소품전’을 진행한다. 전시에는 고려청자와 백자 31점, 조선백자 44점, 분청사기 18점 등 93여점의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갤러리 까루나, 김지선 ‘부처님 오신날’展

불교철학 바탕 현대미술 접목

현대사회 수행의 중요성 담아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갤러리 까루나가 김지선 작가 초대전을 갖는다. 12월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부처님 오신날’이다.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 포스트모더니즘은 평범한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치의 방향은 인간을 향하고 있다.

과거의 작품들이 거대한 사회담론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려냈다면 현대의 작품들은 외롭고 소외된, 그리고 사소하지만 소중한 인간의 감정을 그려낸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소재의 다양성을 가져왔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더 넓은 소통의 장을 열어주었다.

김지선 작가의 작품은 동양에서 발생한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그려진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정착했고 우리나라 역사에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며 뿌리를 내렸다. 작품에 등장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수행자의 길인 불도(佛道)다. 그 길의 끝에는 작가 자신을 의미하는 일주문이 서있다. 세속의 번뇌를 말끔히 씻고 일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처님 오신날’, 캔버스에 아크릴, 2019년.

“부처님을 만나 한바탕 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작품 속에 담아냈다. 개인의 감정이 중요해지고 자아의 표현이 강하게 표출되는 시대, 마음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작품을 보며 느꼈으면 한다. 길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관람자도 자신의 길을 상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김지선 작가는 서울과학기술대 조형예술학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미술과에서 공부 중이다. 불교박물관 청년작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현대미술과 접목시켜 작품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한국불교중흥 원력, 비구니회도 한뜻으로 외호”

전국비구니회, 12월16일

위례 상월선원 정진 동참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스님)가 전막결사 현장인 위례 상월선원을 참배하고 한국불교중흥에 뜻을 모았다.

전국비구니회는 12월16일 집행부와 비구니총회의원스님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 상월선원을 참배, 외호정진에 동참했다.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현정, 성본, 정명 스님과 총

무부장 보련, 재무부장 지홍, 국제부장 정혜, 범룡사 주지 해연 스님과 비구니총회의원 상덕, 정운(4교구), 정현, 정운(15교구), 대현, 철우, 진명, 혜도, 정관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본각 스님은 “한국불교중흥이라는 큰 원력으로 목숨 건 정진에 들어가신 스님들이 무사히 결사를 회향할 수 있도록 전국비구니회도 힘을 모으겠다”며 “비구니 어른 스님들도 결사 소식을 듣고 ‘한국불교의 수행가풍을 일으키고자 정진하는 스님들의 마음을 올곧게 이어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상월선원 총도감 해일 스님은 “본각 스님을 비롯해 비구니스님들의 화합된 모습을 보니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된다”며 “비구니스님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비구니스님들은 이날 상월선원 외호정진에 동참한 연주암, 대덕사, 연불사, 운수암, 자장암, 원적정사 등 사부대중 200여명과 함께 1시간 가량 기도 정진하고 도량을 순례했다.



본각 스님은 “아홉 분 스님들의 원력과 외호대중들의 열기에 흑한의 서리도 녹아내릴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결사의 원력이 사부대중에게 그대로 전해져 해제 후에도 이어지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중흥으로 확대될 수 있길 발원했다”고 말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안심정사 연말 지장기도 및 신년 산신기도

지장경 독송 일정

- 날 짜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7일)
- 시 간 21:00~04:00 까지
- 장 소 각도량

논산본찰	010-7422-4557	농협 429-01-046837
서울도량	010-6640-4557	국민 831001-00-008856
부산도량	010-9421-4557	우리 1005-901-906758
대구도량	010-5421-4557	농협 301-0217-9108-21
제주도량	010-9476-4557	농협 301-0222-9444-21
창원도량	010-8611-4557	농협 351-1060-4346-63

새해 태백산 산신기도

- 날 짜 2020년 1월 4일

안심정사 회주 철학박사 석법안 합장